

## 하이마트에 '세라젬 전용 브랜드관' 오픈

홈 헬스케어제품 경험기회

세라젬(CERAGEM)이 롯데하이마트에 '세라젬 전용 브랜드관'을 오픈했다고 13일 밝혔다.

세라젬은 소비자들께서 척추의료기전 세라젬 마스터 V4, 안마의자 파우제(PAUSE) 등 세라젬 홈 헬스케어 제품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세라젬은 대구 범어네거리점, 인천 주안점, 경기 광주점, 천안 두정점, 김해 내동점, 대덕 롯데마트점, 울산점 등 7개 지점의 전용 브랜드관 오픈을

완료해 운영 중이다. 향후 17개 지점에 추가로 오픈할 계획이다. 전국 100개 지점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라젬 전용 브랜드관에는 척추 의료기전 세라젬 V4와 안마의자 파우제를 전시한다. 전문 상담 직원이 제품 체험은 물론 고객 맞춤 구매 상담까지 진행한다.

세라젬 V4는 사용자의 피로회복과 근육통 완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처 인증 척추 의료기전이다. 사용자가 원하는 척추 부위를 찾아서 관리할 수 있는 마스터 모드 등 17가지의 특화된 마사지 프로그램을 탑재했다. /백지연 기자



SK매직 터치온 플러스 식기세척기 /SK매직 청호나이스 휘카페, /청호나이스

## 집밥족 늘자 주방가전 '반사익'

SK매직 '식기세척기' 인기 상반기 매출 5016억... 39% 성장

청호나이스 정수기 매출 35% ↑ 커피정수기 '휘카페' 20% 성장

락앤락 소형가전 카테고리 인기 상반기 매출 137% 성장률 기록



락앤락 칼도마살균블럭(위), 삼광글라스 글라스락 렌지쿱 제품. /락앤락·삼광글라스

주방가전용품업계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충격을 피했다. 코로나19로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집밥족이 증가하며 집밥의 수요가 늘어나자 관련 업계가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으면서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매직의 식기세척기가 위생가전으로 떠오르며 인기를 끌고 있다. SK매직의 올 상반기 매출액은 5016억원으로 전년 동기 3608억원과 비교하면 39% 성장했다. 특히 SK매직의 식기세척기는 1~8월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70% 증가했다. SK매직의 전기오븐 제품도 올 상반기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180% 늘었다.

SK매직 관계자는 "집에서 음식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며 자연스럽게 식기세척기 및 전기오븐 등의 매출 증가로 이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위생가전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정수기 매출도 상승했다. 청호나이스는 1~8월 정수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보였다. 식품보관용기 매출도 올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16% 올랐다. 락앤락은 소형가전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지난 4월 '마카롱 밥솥'으로 유명한 제니퍼를 인수했다. 이후 소형가전을 분야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삼광글라스도 올 상반기 43억원의 영업이익으로 2019년 상반기 2억원의 영업이익과 비교해 1811% 늘어 눈길을 끌었다. 특히 '글라스락 렌지쿱' 시리즈는 최근 5개월 지난해 매출의 4배 이상의 성과를 보였다.

가파른 매출 증가에 대해 삼광글라스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집밥수요가 늘어나며 가정간편식이 인기를 모았다. 글라스락 렌지쿱의 매출 성과도 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그밖에도 삼광글라스는 코로나19로 수요가 높아진 언택트 소비에 집중하고 있다.

인하대 이은희 소비자학과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음식점도 못 가고, 배달도 한계가 있다"며 "세 끼를 다 집에서 해결하기 위해 기존에 집에서 음식을 해 먹던 사람들도 주방가전이 더 필요해졌고, 음식을 해 먹지 않던 사람들도 주방가전이 필요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건강 및 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식기세척기 및 정수기 수요도 늘어났다"고 강조했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 휴테크 "수타 마사지로 피로 풀어요"

'안마의자 ES9 블랙' 출시

휴테크산업이 '안마의자 ES9 블랙'을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휴테크 ES9 블랙은 바다의 검은 다이아몬드라 불리는 캐비어에서 영감을 받아 세련된 컬러로 블랙 바디를 완성했다.

휴테크는 5가지 수타 마사지 로직을 기반으로 신체 부위별, 테마별 총 15가지 자동 마사지 프로그램을 적용했다. 수동 마사지 기능도 갖췄다. 특히 공기압 마사지 강도를 하체, 코어(골반), 상체 3가지 부위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수동 마사지 프로그램 중 '발목 스트레칭' 기능을 특화한 점도 특징이다.

휴테크 ES9 블랙 안마의자에는 키



휴테크 ES9 블랙 안마의자. /휴테크

임 방지 안전 시스템도 장착되어 있다. '차일드락 기능'을 새롭게 적용한 점도 눈길을 끈다. 전원 버튼을 3초 이상 길게 눌러야 안마의자 작동 가능해 어린이, 노인 등이 있는 가정의 안마의자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백지연 기자

### 새로 나온 책

## 규칙 필요없는 '자유와 책임' 기업문화

1997년 우편으로 DVD를 대여해 주는 회사에 불과했던 넷플릭스는 현재 전 세계 190여개국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성장했다. 코로나 팬데믹, 언택트 사회, 뉴노멀 시대 등의 산업 생태계 변화로 수많은 기업이 사라질 때 넷플릭스는 오롯이 살아남아 '최고 가치의 기업'이 됐다.

넷플릭스의 공동설립자이자 현재 CEO인 리드 헤이스팅스는 규칙이 필요 없는 '자유와 책임'이라는 기업문화를 비법으로 제시한다. 이곳엔 일의 추진력과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까다로운 절차나 규정이 없다.

우선 기획한 아이템 진행이나 타 업체와의 계약 여부와 관련해 상사의 승인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직급에 따른 연봉 기준도 없지만 확실한 건 업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이다. 인간은 먼저 확실한 보상을 보장받을 때 최고의 아이디어와 창의성이 발현된다는 판단에서다.

덕분에 넷플릭스는 스타플레이어들



### 규칙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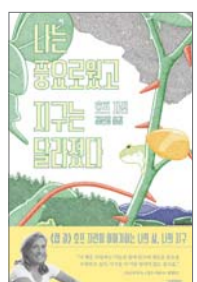
리드 헤이스팅스, 에린 마이어 지음/이경남 옮김 /알에이치코리아(AHK)

이 일하고 싶은 회사가 됐고 지구상 가장 빠르고 유연한 혁신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300년간 부를 창출해온 산업 시대에는 직원들의 움직임을 통제하는 규정과 절차 문화가 주효했지만 지식재산권과 창의적 서비스가 성장의 기반이 되는 현 상황에서는 혁신과 아이디어를 배양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책은 강조한다. "독수리를 새장에 가두지 마라. 통제와 규정은 무능력한 직원에게나 필요하다"

468쪽, 2만5000원 /김현정 기자 hjk1@

### 나는 풍요로웠고, 지구는 달라졌다

호프 자런 지음/김은영 옮김/김영사



2020년 우리는 오랫동안 말로만 들어왔던 생태계 파괴를 온몸으로 절절히 느끼고 있다. 코로나19는 언제까지나 이어질 것 같았던 일상에 제동을 걸었고 시베리아에선 이상 고온이 감지되고 있다. 먹고 소비하는 우리의 삶이 지난 50년간 지구를 어떻게 망가뜨려 놓은 걸까. 책은 1969년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인구, 평균수명, 식량 생산 방식과 에너지 소비 등에 어떤 변화가 있었고 이것이 결국 지구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일깨우게 한다. 276쪽, 1만5500원. /김현정 기자

## 온라인 IR 참여 컴업스타즈 120곳 선정

중기부, 로켓리그·루키리그 진행 기업홍보용 영상 무료제작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와 2020년 컴업 조직 위원회는 올해 컴업 2020 행사의 하이 라이트인 온라인 투자설명회(IR) 참여 기업(컴업스타즈) 120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컴업 온라인 투자설명회 프로그램은 크게 '로켓리그'와 '루키리그'로 나눠 진행한다. '로켓리그'는 12개 분야에 부합한 산업과 관련한 비전을 제시하는 우수 창업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루키리그'는 창업 3년 이내로 누적 투자유치 5억원 미만의 초기 창업 기업이 선정 대상이다.

신청 기업 대상으로 1차 서류 평가, 2차 공개 및 전문성 평가 등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120개 스타트업을 선정

했다. 로켓리그는 12개 분야별 전문성을 보유한 스타트업 84개사이다. 루키리그는 미래 성장성을 보유한 초기 스타트업 36개사가 함께한다.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이라는 취지에 걸맞게 해외 스타트업이 61개사로 국내 스타트업 59개사보다 더 많이 참여한다. 특히 해외에서 신청한 스타트업 중 이스라엘이 8개사로 가장 많았다. 미국과 독일이 각각 7개사, 싱가포르가 6개사로 뒤를 이었다.

국내의 경우 506억원의 투자를 유치한 자율주행용 객체 인식 소프트웨어 전문업체인 '스트라드비전'을 선정했다. 462억원 투자유치 받은 신개념 테마파크 플랫폼 업체인 '모노리스'도 컴업 스타트업에서 만날 수 있다.

중기부와 조직위는 컴업스타즈에게 기업 홍보용 영상을 무료로 제작 지원한다. 컴업 누리집 등에 온라인 홍보 부

스도 제공한다. 국내외 벤처캐피탈(VC) 및 바이어 등과 온라인으로 연계한 투자상담회와 수출상담회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기회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선배 스타트업과 동료 기업과 실시간 네트워킹 기회도 주어진다.

올해 컴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막식과 메인 컨퍼런스는 당초 계획대로 오는 11월 비대면 온라인 중심으로 개최한다. 투자설명회, 수출상담회 등 부대행사는 매칭 상황 등에 따라 온라인을 통해 유연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컴업(COMEUP) 2020 공동조직위원장을 맡은 컬리의 김슬아 대표는 "이번 컴업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전문성과 미래 성장성을 갖춘 세계적인 혁신 스타트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지연 기자